

직류 자력계의 제작

장 충근*

Construction of a Direct Current Magnetometer

Chang, Choong-Geun

요약

자기저항 센서로부터 얻은 자기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직류 자력계를 설계하고, 그 회로를 구현하였다. 제작한 자력계 및 상용 MAG-01 자력계로 측정한 자장은 서로 잘일치하였고, 제작한 자력계의 자동 범위선택기능, 애널로그 출력기능 및 벡터 감지기능이 양호하였다. 자력계의 측정범위는 $1 \mu\text{T} \sim 1.999 \text{ mT}$ 였고, 분해능은 1 Hz의 밴드폭에서 -132 dB였으며, 측정한 자장은 3·1/2-digit LED로 표시 되었다.

Abstract

In order to display magnetic signals obtained from a magneto-resistance sensor, a direct current magnetometer was designed and its circuit was constructed. The magnetic fields measured by the home-made magnetometer, which showed good functions of automatic ranging, analog output, and vector sensing, were well agreed with those by commercial MAG-01 magnetometer. The measurement range of the magnetometer was $1 \mu\text{T}$ to 1.999 mT , the resolution was -132 dB within 1 Hz bandwidth and the measured magnetic fields could be displayed with 3·1/2-digit LED.

I. 서론

자장을 변화시키면 전기저항이 변화되는 재료의 자-전(磁-電)현상에 관한 연구는 1966년에 Hebbert R.S. 등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자-전현상에 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것이다.

본 저자는 1991년부터 이 연구에 참여하여, 1992년에 강자성체 박막(Fe-Ni, Co-Ni)의 자기저항효과에 관한 연구(I)⁽¹⁾를 수행하였고, 1994년에는 강자성체 박막(Co-Ni)의 자기 저항효과에 관한 연구(II)⁽²⁾를 수행하여, 자기저항센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또한 1995년에는 강자성체 박막(Co-Ni)의 자기저항효과에

관한연구(III)⁽³⁾를 수행하여 자기저항센서의 감도를 33 V/T로 향상시킨 바 있으며, 교류 자력계의 구현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작한 자기저항 센서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자기저항 센서용 직류 자력계를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구현시킨 다음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본 결과, 자력계의 LCD에 표시된 수치와 실제 자장값이 일치 되었으며, 자기신호의 극성이 반대로 되는 경우에도 이득이 자동으로 조절되었다. 또한 auto-ranging기능, analog 출력기능 및 vector sensing기능 등이 원활하게 작동되었다. 그리고 측정범위는 $1 \mu\text{T} \sim 1.999 \text{ mT}$ 였고, 분해능은 -132 dB(1 Hz 밴드폭)이었다.

II. 실험

1. 자력계 설계

*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Dept. of Phys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자 : 1996년 3월 21일>

지자장(地磁場)과 같이 미약하고 서서히 변하는 자장을 감지하기 위하여 자기저항 센서에 유기되는 신호를 자속밀도로 변환시킨 후, LED로 표시하면서 analog 형태의 자장강도를 기록기에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자력계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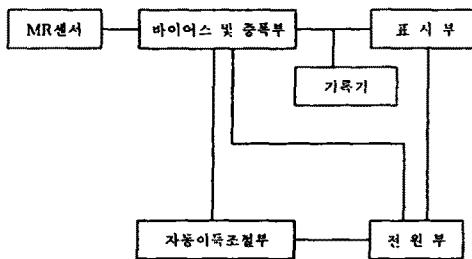


그림 1. 자력계의 개요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magnetometer.

2. 회로 설계

(1) 바이어스회로 및 증폭회로 설계;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이어스 및 증폭부의 회로를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신호증폭에 AD524를 채택하였고, 교정을 위

한 증폭에 OP07을 사용하였으며, 바이어스용으로 AD581을 이용하였다. 그럼 2에서 가변저항 VR1으로 브리지형 자기저항센서의 균형을 잡았으며, AD581의 출력을 0-10 V 범위에서 조절하기 위하여 가변저항 VR2를 삽입하였다.

가변저항 VR3은 offset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영점조정에 사용하였고, 릴레이 RY 1, 2 및 3은 각각 이득을 10, 100 및 1000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며, 가변저항 VR4는 이득을 조절하여 자력계의 LED에 표시된 자장값이 실제값과 같은 값으로 표시되도록 교정할 목적으로 삽입하였다.

(2) 자동이득조절부 설계; 증폭기의 이득과 표시기의 눈금을 자동제어하기 위하여 절대치 회로와 원도우 비교기를 그림 3과 같이 설계하였다. 절대치 회로는 입력신호가 음이건 양이건 모두 양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출력이 +1.2 V 보다 작으면 A점에서의 출력은 +12 V, +1.2 V보다 크고 +10 V 보다 작으면 0 V, +10 V보다 크면 -12 V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B점과 C점의 출력은 순차적으로 0 V와 +12 V, 0 V와 0 V 및 +12 V와 0 V로 변화될 것이며, 이 신호가 OR 게이트를 통과하면 각각 high,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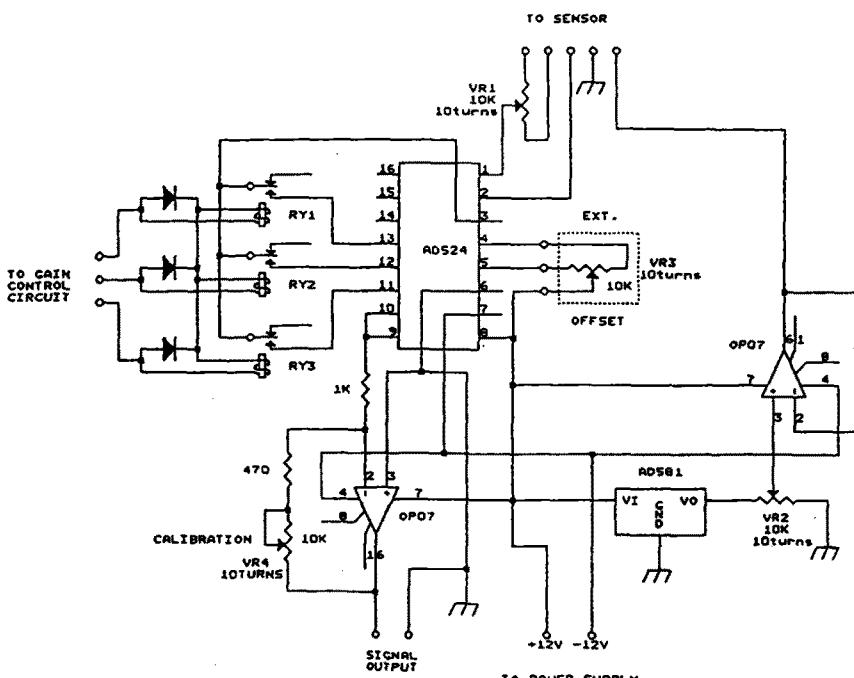


그림 2. 전류바이어스 회로 및 신호증폭 회로도.

Fig. 2. Electronic circuit of the current bias and signal amplifier.

high(H,L,H)로 되어 AND 게이트를 제어함으로써 클럭이 카운터에 인가되거나 금지되도록 하였다.

한편, 디코더를 사용하여 카운터의 BCD 출력을 10진

신호로 변환시킨후,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인입시켜 이득 조절용 릴레이가 구동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NAND 게이트는 평상시에 H로 출력되다가 입력 신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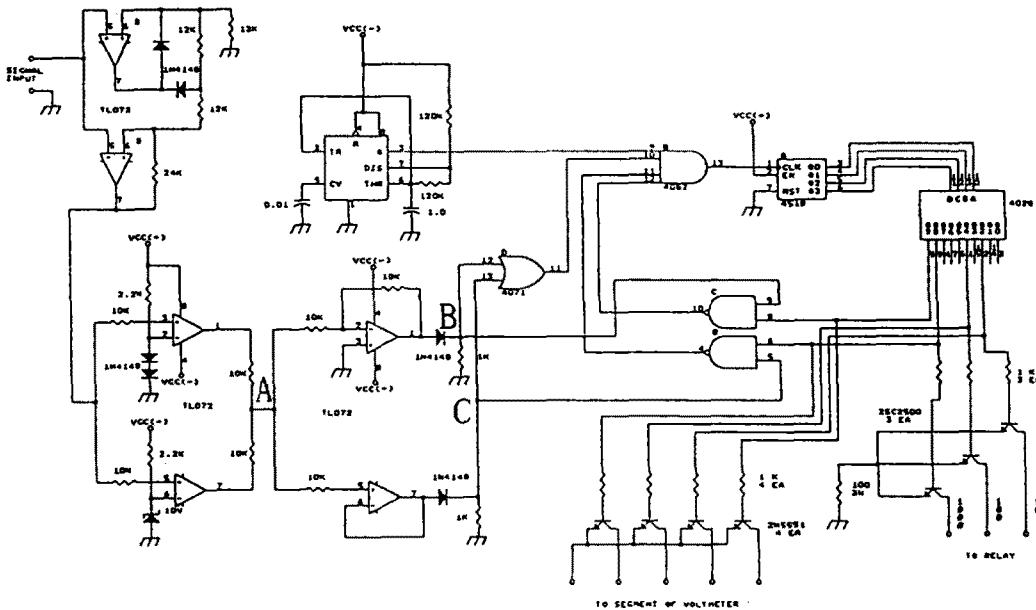


그림 3. 자동이득 조절회로도.

Fig. 3. Automatic gain control circ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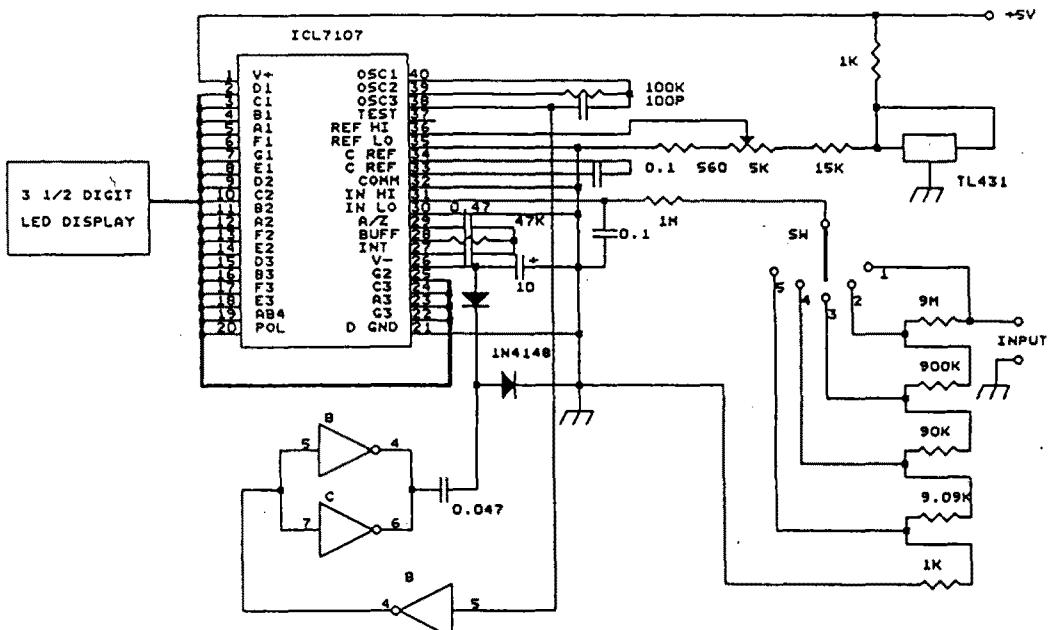


그림 4. LED 표시회로도.

Fig. 4. LED display circuit.

+1.2 V보다 작고 이득이 1,000 일때 또는 입력 신호가 +10 V보다 크고 이득이 1인 경우에 AND 게이트를 켜어하여 카운터의 클럭이 금지되도록 하였다.

만약 입력신호가 +1.2 V보다 작으면 순차적으로 이득이 증가되다가 +1.2 V에서 +10 V사이에 있으면 OR 게이트로 클럭을 금지시켜 현재 상태의 이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득이 최고로 되어도 입력신호가 1.2 V보다 작으면 NAND 게이트에 의해서 클럭이 금지된다. 반대로 입력신호가 +10 V보다 크면 이득 조절용 릴레이가 전환되고 입력신호가 1.2 V에서 +10 V사이에 있으면 릴레이가 정지되고, 이득이 1인대도 입력신호가 +10 V보다 크면 NAND 게이트에 의하여 클럭이 금지되어 이득이 1인 상태로 유지되게 하여 자리수와 단위가 전환되도록 설계하였다.

(3) 표시부 설계; 그림 4는 디지털미터(3·1/2-digit)의 회로를 설계한 것이며, 여기서 ICL7107은 CMOS A/D 변환기로서 적분기, 애널로그 스위치, 발진기, 카운터 및 LED표시기 등의 구동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소자이다. 이 소자의 변환속도는 초당 2.5회로 고정시켰다.

(4) 전원부 설계; 전원부는 충방전이 가능한 Ni-Cd

전지 2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5 V, +12 V, -12 V의 전원이 각 회로에 공급되도록 하였다. 그림 5에서 전지가 소모되어 가변저항 VR(5 kΩ)에 의한 전압이 6 V이하로 강하되면 741이 작동하여 LOW BATT. LED가 점등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스위치를 RECHARGE쪽으로 전환시키면 SSR(solid state relay)이 구동되어 Ni-Cd 전지가 재충전되도록 하였다. 표시부의 전원전압은 +5 V이므로 5 V용 정전압소자 IC7805를 사용하여 LED의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자력계의 구현결과

그림 2의 회로와 같이 구현된 바이어스 전원에서 VR2를 조정함으로써 0-10 V범위의 정전압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VR3에 의해서 offset 조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VR4에 의해서 표시판의 수치와 실제값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었다.

그림 3과 같이 제작된 자동이득 조절기에서 클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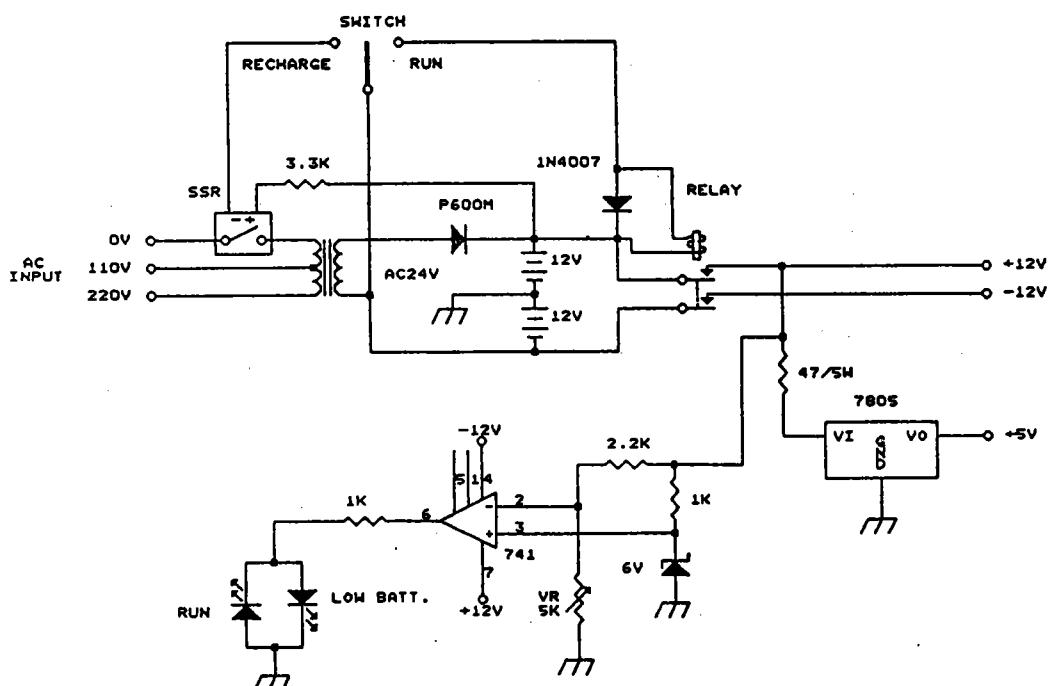


그림 5. 전원 공급회로도.

Fig. 5. Power supply circ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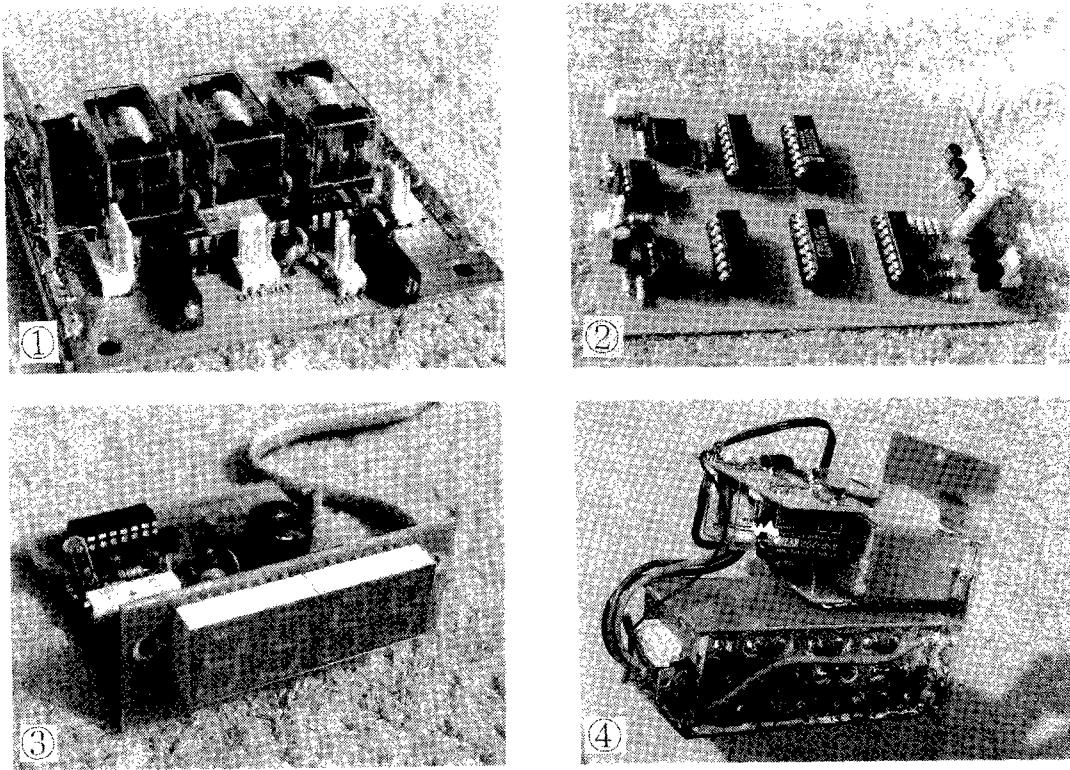


사진 1. 자력계를 구성하는 주요 모듈(①: 전류 바이어스 및 신호 증폭부, ②: 자동 이득 조절부, ③: LED 표시부, ④: 전원부).

Photo. 1. Main modules consisting magnetometer(①: current bias and signal amplifier, ②: automatic gain controller, ③: LED display, ④: power supply).

NE55에 의해서 2 Hz로 발진되었고, AND 게이트(4082), OR 게이트(4071), NAND 게이트(4011), 카운터(4518) 및 디코더(4028) 등을 모두 CMOS로 구현시키면서 절대치 회로를 채택한 결과 극성이 반대가 되는 경우에도 이득이 자동으로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D의 구동을 위하여 적분기, 애널로그 스위치, 발진기 및 LED 표시기 등이 내장되어 있는 IC7107과 Hex inverter 4049를 그림 4와 같이 배선하여 구동시켜본 결과 이상없이 작동되었다. 한편 1.2 V Ni-Cd 전지 2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만든 직류전원과 전압강하를 위하여 부가시킨 741과 LED 및 정진압 소자 IC7805 등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류바이어스와 신호증폭부, 자동이득 조절회부, LED 표시부 및 전원공급부의 실물은 사진 1과 같고, 완성된 직류자력계의 외관은 사진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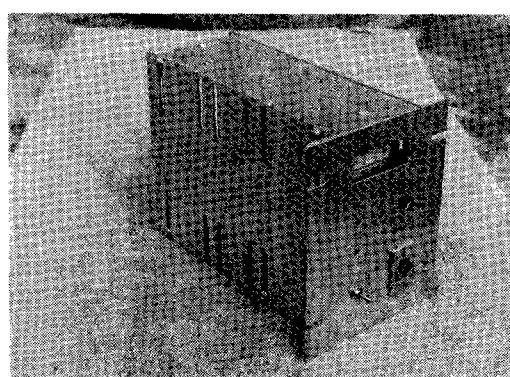


사진 2. 제작한 직류 자력계.

Photo. 2. Photograph of the home-made direct current magnetometer.

2. 자장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력계를 사용하여 본 저자의 전용 실험실의 위치($127^{\circ} 26'E$, $36^{\circ} 20'N$, 해발 100 m)에서 지자장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실선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력계로 측정한 결과이고, 점선은 Bartington사제(영국) flux gate magnetometer(#Mag-01)로 측정한 결과인데, 이들 양자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단 S→N 방향의 지자장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력계는 $16.01 \mu T$ 를 나타내는 반면에 MAG-01은 $16.230 \mu T$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외의 다른 방향에서도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자력계의 규격과

성능에서 야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지시치의 차이는 신호증폭율과 센서의 배향 등을 교정하므로서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S→N 방향의 지자장 $16.01 \mu T$ 는 대전지방의 지자장값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측정장소가 실험실내부이고 또한 실험실내에 각종 철제 실험기구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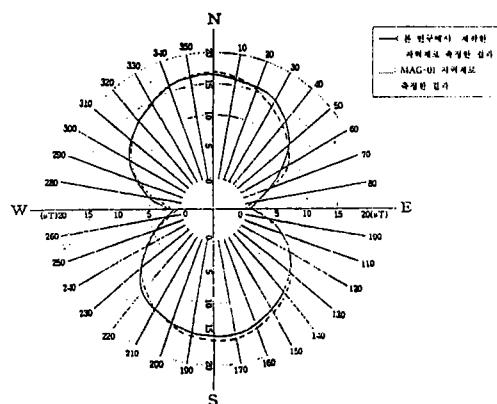


그림 6.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력계와 상용 MAG-01 자력계로 지자기를 측정한 결과의 비교
(측정위치: 동경 $127^{\circ} 26'$, 북위 $36^{\circ} 20'$, 해발 100 m).

Fig. 6. Comparison of earth magnetic fields measured by both home-made and commercial MAG-01 magnetometers at $127^{\circ} 26'E$, $36^{\circ} 20'N$, and 100 m from sea level.

3. 자력계의 기능 및 규격

(1) 전력 공급기능: 동작에 소요되는 전력은 전전지나 충전기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공급되었고, 충전된 전전지는 12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충전에는 5 시간이 소요되었다.

(2) Auto-ranging 기능: 저자장 측정시 전면의 LED는 μT 단위로 자장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표시시스템에 도입된 auto-ranging 시스템은 매우 원활하게 작동되었다. 저자장에서는 1 자리 수치와 3 자리 소수치가 나타나 full scale range, 즉 ± 1.999 가 초과되면 LED의 표시는 ± 1 을 나타내면서 over range 되었다.

(3) Analog 출력기능: 처음부터 정지되어 있거나 서서히 변화하는 저장도 저장을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할 수 있고, 출력의 주파수 응답은 정합이 잘되는 chart recorder로 기록할 수 있었다.

(4) Vector sensing 기능: 탐침속에 들어 있는 자기저항 센서는 탐침축에 평행한 자장성분에 반응하여 vector sensing 기능을 보이면서 cosine 방향성 반응을 보였다. 측정전압 V는 $V = B_{max} \cdot \cos\theta$ 로 나타났고, 탐침축이 자장의 북쪽방향을 향하거나 서쪽방향을 향하면 +값을 보이고, 남쪽방향 또는 동쪽방향을 향하면 -값을 나타내었다.

(5) 기계적 규격: 크기: $120 \times 230 \times 150$ mm, 무게: 2.3 kg.

(6) 성능: 측정 범위: $1 \mu T - 1.999 mT$, 분해능: -132 dB(1 Hz 밴드폭), LED: 3 ~ 1/2-digit, auto range.

(7) 전면 조정판: on/off/충전, 3단 스위치, 6p Fischer 커넥터, 충전요구 표시등, offset 조정 VR.

(8) 뒷면판의 구성: AC 120 V, 0.5 A 입력단자, analog 출력단자(BNC).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저항 센서에서 얻어진 자기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직류자력계를 설계하고, 그 회로를 구현 시켜 저장을 측정한 결과는 상용자력계(MAG-01)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증폭기의 이득과 표시기의 눈금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절대치 회로와 원도우비교기 회로를 채택한 결과 자기신호의 극성이 반전되는 경우에도 이득이 자동으로 조절되었다.

저자장 측정에서 전면의 LED는 μT 단위의 자장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표시 시스템에 도입된 auto-ranging 기능에 의해서 측정치가 full scale range($\pm 1.999 \text{ mT}$)를 초과하면 LED의 표시는 ± 1 을 나타내면서 over range되었다.

처음부터 정지하여 있거나 서서히 변화하는 저강도 자장도 긴 시간에 걸쳐서 조사 할 수 있었으며, 이때의 analog 출력신호는 chart recorder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탐침속에 들어있는 자기저항센서는 탐침축에 평행한 자장성분에 반응하여 vector sensing 기능을 보이면서 cosine 방향성 반응을 보였다. 제작된 자력계의 측정범위는 $1 \mu\text{T} \sim 1.999 \text{ mT}$ 였으며, 분해능은 1 Hz 의 밴드폭에서 -132 dB 였고, 측정된 자장은 $3 \cdot 1/2$ -digit의 LED로 표시되었다.

참고문현

- [1] 장충근, 유중열, 송재용, 윤만영, 박재형, 손대락, “강자성체박막(Fe-Ni, Co-Ni)의 자기저항효과에 관한연구(I),” 한국센서학회지, 제1권, 제1호, pp. 23-34, 1992.
- [2] 장충근, 유중열, 남선우, 손대락, “강자성체박막(Co-Ni)의 자기저항효과에 관한 연구(II),” 한국센서학회지, 제3권, 제1호, pp. 68-77, 1994.
- [3] 장충근, 윤만영, 김영일, 손대락, “강자성체박막(Co-Ni)의 자기저항효과에 관한 연구(III),” 한국센서학회지, 제4권, 제1호, pp. 9-14, 1995.
- [4] 장충근, “교류자력계의 구현,” 충남과학지(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2권, 제2호, pp. 81-86, 1995.

著 者 紹 介

장 충 근

『센서학회지 제1권 제1호』 논문 92-03, p.34 참조.

현재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교수